

ECONOMY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저출산 해소 간접세 신설을”

광주경총, 대선공약 반영 촉구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분야에 대한 대선공약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을 감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경제계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오랫동안 모색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를 초래하며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출생률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및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 미래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이는 기업들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다양한 정책 접근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절전하면 요금 할인” 한전 에너지캐시백

7월 13일까지 경품 캠페인…작년 166억 감면

주택용 가입자 대상 1kWh당 최대 100원 혜택

한국전력이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소비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한전은 5월 기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25만호 돌파를 계기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제도 참여

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14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번호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통신중계기나 소형점포, 창고 등 주거용이 아닌 장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에너지캐시백 참여 고객의 전기 절감량은 228GWh로 이는 전북 장수군의 연간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절감 고객들에게는 총 166억원 상당의 전기요금 감면됐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특히 단순한 절약을 넘어 전력 사용을 줄인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시키며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더 많은 고객들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해남세무서·완도군 통합민원실 운영 협약

군청서 사업자등록·신고 등 국제 민원까지 원스톱 처리

해남세무서(서장 박현주)는 최근 완도군청 사무실에서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국제·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완도군청 내에 국제 업무실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현주 해남세무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세 민원과 함께 국제민원 발급, 사업자등록업무, 국제 신고업무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하게 돼 완도군민의 세무행정 및 납세편의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일시 : 2025. 5. 9.(금) 10:00 장소 : 완도군청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동행상회’서 수도권 소비자 공략

도, 내달 8일까지 4주간 기획전…판로 확대 총력 지원

전남도가 6월 8일까지 4주간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지역특산품 상생매장 ‘서울동행상회’에서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오프라인 기획전’을 열어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총력 지원한다.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오프라인 기획전은 수도권 주요 소비지에서 전남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집중 홍보·판매하는 행사다. 제품 판로 확대와 인지도 제고를 통해 기업 자립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총 13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 축산물, 수산물, 절류, 전통떡, 즉석조

리식품 등 50여 품목이 전시·판매된다. 특히 매주 금요일 완도 전복, 담양 죽순떡갈비, 장성 옐로우푸드 김치 등 지역 대표 품목의 현장 시식·함인 행사가 열려 소비자의 오감 만족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동행상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전용 상생매장이다. 현재 전국 150개 지역 403개 업체 2000여 상품이 입점했다.

이번 기획전은 해당 매장의 중심부인 기획전 코너 내 특별관을 통해 전남 제품만을 별도로 집중 조명함으로써, 수도권 소비자와의 직접 접점을 확대할 기회로 주

목받고 있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판로 확보를 위해 이번 수도권 기획전을 기획했다”며 “소비자 반응과 매출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 향후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타 지역 대형 유통망과도 연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참여기업의 실질적 매출 증대는 물론, 서울권 신규 유통채널 진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수 제품은 온·오프라인 유통망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대동문화재단 설립 30주년 기념 공연

울림

빅맨싱어즈

김향순

장사익

김산옥

임창숙

소향

돌움 무용단

소향 | 장사익

김향순 | 김산옥 | 돌움 무용단 | <소뉴> 파디스타 임창숙 | 빅맨싱어즈

VIP 150,000원 · R 120,000원 · S 100,000원 · A 60,000원

2025. 5. 29. THU 빛고을시민문화관

설립 기념식 17:00~18:00 기념 공연 19:30~21:10(100분간)

주최 대동문화재단 티켓 구매 062) 674-6567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daedong.com *전체관람가

Since 1976

삼원가든

Samwon Garden

롯데 광주점 “삼원가든 갈비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행사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서울 압구정 유명 갈비 맛집인 ‘삼원가든’ 행사를 진행한다. 삼원가든은 갈비의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풍미를 서울 압구정에서 48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명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양념 양갈비, 양념 한우 불고기, 비빔밥 LA갈비까지 전통 갈비 명가의 노하우가 담긴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6기 청년 330명 선발

이스트소프트 등 컨소시엄 새 기관 참여…5개 트랙 확대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이하 AI 사관학교)가 새롭게 선정된 교육운영기관과 함께 6기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AI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단장 오상진)은 과기정통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인 AI 사관학교의 2025년도 교육과정을 6기부터 새로운 운영기관과 함께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AI 사관학교는 전국 만 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학력·전공·지역에 제한 없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AI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주 AI 집적단지를 거점으로 지역 정착형 인재를 육성해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AI 사관학교 6기 운영은 ㈜이스트소프트, (사)스마트인재개발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네이버클라우드연구소가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는다. 이들은 지난 4월 기술 및 가격 평가를 거쳐 교육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6기부터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이 학교장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업계 실무 중심의 시각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의 전문성과 교육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컨소시엄은 교육운영 경험과 산업 연계 역량을 고루 갖춘 기관들로 구성됐다.

대표 운영기관인 ㈜이스트소프트는 30년 역량의 1세대 IT 기업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 광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총괄한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AI 사관학교 3~5기를 운영한 경험으로 교육생의 성장 지원에 특화돼 있다. 6기는 총 1300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기존 AI 모델링, 서비스, 플랫폼·인프라 트랙에 더해 올해는 AI 데이터, AI 비즈니스 트랙이 추가돼 총 5개 트랙으로 확대됐다.

한편 AI 사관학교는 오는 1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23일까지 330명을 최종 선발한다. 정규 교육은 6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장승기 기자 sky@

전남도 공공배달앱 ‘먹개비’

사랑에 서포터즈 홍보이벤트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개비’와 협력해 12일부터 수도권 청년층과 열지(MZ)세대(20~30대)를 겨냥한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먹개비 앱 이용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랑에 서포터즈에 신규 가입한 이용자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먹개비는 약 1000만원 규모의 쿠폰을 지원하고, 앱의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이벤트를 홍보한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앱 먹개비는 전남지역 1만 3000여 가맹점과 하루 평균 7000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전남의 지역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먹개비 입점 업체를 중심으로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모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할인가맹점 모집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